

1995년 『조선예술』 음악 읽기

1995년에 발행된 조선예술 1호부터 12호에 수록된 음악관련 기사는 소식과 악보, 반향, 수기 등을 제외하면 모두 84개이다. 이중 론설은 3개, 강좌 9개, 연단 5개, 그리고 노래해설과 가요평론이 29개, 위대한 스승의 손길아래가 3개 등으로, 가요와 관련된 기사가 가장 많이 썩여졌음을 볼 수 있다. 론설에는 김정일의 음악업적을 찬양하는 「주체음악예술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한봉철이 쓴 통일주체가요에 대한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할 통일주체가요들을 더 많이 창작하자(1995.02)」·「조국통일주체가요선물의 정서적특성(1995.05)」이 있는데, 이는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작업과 함께 김일성이 못다 이루고 죽은 통일에 대한 과제를 김정일에 의해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일성에 관하여 음악계에서는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나, 1995년에는 김일성을 추모하는 노래가 많이 보인다. 1호에 「위대한 수령님을 길이 모시고 살려는 우리 인민의 심장의 노래-가요 《수령님 영원히 모시고 살리》에 대하여」가 실려 있으며, 2호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 관철을 맹세하는 신념의 노래-가요 《우리는 맹세한다》에 대하여」가 실려 있다. 그리고 4호에서는 「영원한 충성의 메아리로 울려 퍼진 신념의 노래-불후의 고전적명작 《충성의 노래》에 대하여」가 보인다. 그리고 7호에는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는 태양의 미소-가요 《해빛같은 미소 그립습니다》에 대하여」와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재형상한 《수령님 한품속에 우리는 사네》에 대한 글인 「세월과 더불어 부를 신념의 노래」, 그리고 9호에는 「아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성정깊게 형상한 감명깊은 명곡-가요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 10호에 「태양을 우러르는 신념의 노래-혁명송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가 바로 그것이다. 1994년을 수령을 잃은 혼란과 당황스러움속에서 보냈다면, 1995년은 음악으로 수령을 추모했던 기간임을 여실이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충성의 노래

장백의 험한 산발 눈보라 헤치시고
혁명의 수만리길 걸어오셨네
내 조국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4천만은 일편단심 충성을 맹세하네

찬 이슬 맞으시며 농장을 찾으시고
눈오는 이른 새벽 공장을 찾으시네
크나큰 그 은덕은 만대에 길이 빛나리
4천만은 심장으로 충성을 노래하네

삼천리 내조국에 해빛은 찬란하고
행복의 노래소리 넘쳐흐르네
통일된 강사나에서 4천만 인민들은
위대하신 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살아라리

(후렴) 아 위대한 수령님께
인민들은 일편단심 충성을 맹세하네

그런데 이 노래들 중 1995년에 새로 작곡된 노래는 《우리는 맹세한다》, 《해빛같은 미소 그립습니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만 새로 작곡된 곡이며, 나머지 곡은 기존의 곡을 재사용해서 부르고 있다. 즉, 《수령님 영원히 모시고 살리》는 1978년에 백인준이 작사하고 김제선이 곡을 붙인 것이며, 《충성의 노래》은 1971년에 작곡된 노래이다. 그리고 《수령님 한품속에 우리는 사네》는 1968년에 작곡된 노래가 보천보전자악단에 의해 다시 편곡되어 불렸으며,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는 1975년에 작곡된 곡이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집체창작)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한평생 인민위해 바친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
꿈결에도 안고 사는 마음 오늘도 그 품을 찾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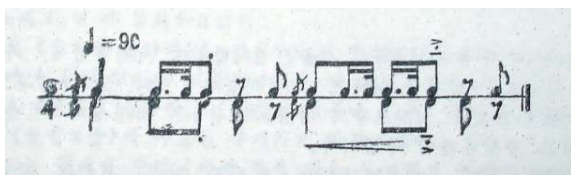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한평생 조국위해 바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나 이 조선 무궁하여라

이 해에는 연재기사가 두건이 보인다. 하나는 2월부터 4월까지 취주악에 관한 기사이며, 다른 하나는 8월부터 11월까지 연재된 대전성기가요예술에 구현된 민족장단에 관한 기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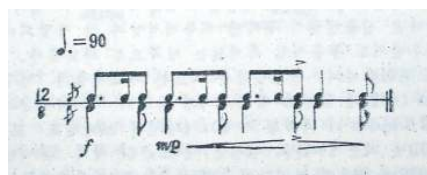
취주악은 기악합주음악으로, 주로 행진을 할 때 사용되나, 실내와 실외의 행사음악으로 사용하는 음악이다. 취주악은 1993년 2.16기념 집단체조취주악에서 처음 보이며, 김정일에 의해 발전된 기악음악의 한 장르이다. 이들이 말하는 취주악의 본질은 “조선사람의 정서와 감정, 지향과 요구에 맞는 취주악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조선민족의 고유한 특성과 정서를 구현한 취주악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우리 식 취주악의 본질은 고유한 민족의 특성과 정서를 구현하고있는 취주악일뿐아니라 주체시대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구현한 새 시대 취주악으로 된다는데 다른 하나의 본질적내용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북한의 취주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음악이며, 이러한 음악의 성격은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명곡과 민요를 음악소재로, 주체선물로 삼고있는 취주악이라는데서 표현”되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대전성기 가요예술에 구현된 민족장단에 관한 기사는 북한 음악이론가인 함덕일이 연재하였는데, 서정장단, 덩더꿍장단, 휘모리장단, 엇모리장단을 소개하였다. 그는 연재의 첫 기사에 “우리 나라 작곡가들은 ... 조선장단에 기초한 민족적이며 현대적인 민요풍가요선류형상으로 시대와 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새롭고 다양하게 탐구발전시킴으로써 가요예술의 전성기를 마련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는 평을 내놓았다. 이는 『음악예술론』에서 제시한 민족음악 발전의 하나로 “민요풍의 가요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김정일의 취지에 어긋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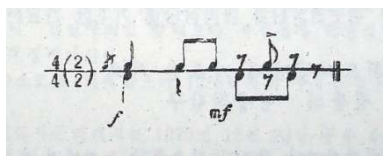
지 않게 작업해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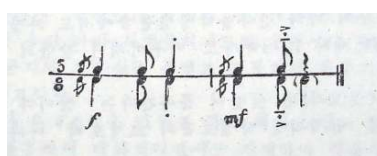
악보 1 서정장단



악보 2 덩더꿍장단



악보 3 휘모리장단



악보 4 엇모리장단

이렇게 가요분야에서 민족성을 강조한 것과 함께 기악분야에서도 민족음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바로 배합관현악, 혹은 악기의 배합편성과 전통을 변형시킨 새로운 민족음악형식이다. 먼저 배합편성은 양악기와 민족악기를 어떻게 섞어야 좋은 소리가 나는지에 대한 모색이며, 1995년에는 전년도에 이어 현악기의 배합이다. 즉, 양악기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에 민족악기 중 소해금, 중해금, 대해금, 저해금을 각각 붙여 연주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변형된 민족음악형식으로 제시한 것은 가야금독주와 병창이다. 이는 “가야금병창의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형식인 가야금독병창을 창조한데 뒤이어 또 하나의 새로운 민족음악형식인 가야금 독주와 병창을 창조하였다.”고 밝힌 바와 같이 전통음악형식인 가야금병창에서 가야금독병창을 만들고, 이를 다시 가야금독창과 병창을 만들어 낸 것이다. 가야금독병창과 가야금독창과 병창의 차이는 “가야금독병창은 독창가수의 형상을 위주로 한 예술종목이었다면 가야금 독주와 병창은 가야금독주의 형상을 내세우는 종목”이며, “가야금독주를 앞에 내세우는 가야금 독주와 병창은 화려한 가야금병창단을 중심에 놓고 그뒤에 배합편성의 반주를 결합한 우리 식의 독특한 민족음악형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야금독병창이 독창가수를 무대중심에 내세워 독창가수의 기교를 발휘하게 하였다면, 이 형식에서는 가야금독주를 독립적으로 내세워 가야금독주가로서의 기교를 마음껏 발휘하게” 한 형식이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1995년은 김일성을 추모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일의 업적

인 취주악 · 민요식 노래 · 배합관현악 · 가야금독병창 등을 부각시키는 작업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배인교